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과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일상이 아닌 일상에 어색해 하고 불편해 하면서도 조금씩 적응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 타협하려고 하는 이 때 외부의 상황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파푸아뉴기니에서 풍토병에 걸려 가지고 갔던 증상에 따라 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병은 점점 심해지고 약은 떨어져서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성령을 구하자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의 저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정말 온전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놀랍고 크신 사랑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로 채워졌고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회복 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강하게 체험한 후로는 때때로 어려움이 올때면 그 날에 행하여 주신 일들과 말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새힘을 얻곤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길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하신 분, 놀랍도록 자상하고 민감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동역하시는 모든 분께 베푸실 크신 은혜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일정대로라면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가서 FTC도 마쳤을 텐데 COVID-19로 인해 2021년 1월에 입국 가능할 것이라는 연락이 왔고 또 다시 3월에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드릴 것은 파푸아뉴기니 독립 기념일(9월14일)에 코로나 사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갔던 선교사 8명이 기도와 감사의 열매가 되어 다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을 시작으로 코로나로 인해 닫혔던 파푸아뉴기니 선교의 문이 더 일찍 더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여시고 일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카룸파 센터는 해발 약 1,700미터에 위치한 고산지대로 체력이 약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사역을 떠나야 해서 안타까워하는 선교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건강하게 잘 쓰임받기 위해 시간을 내어 걷기를 하는 등 난생 처음으로 체력 단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Dictionary) 사역 2017년에 1차로 완성시킨 파푸아뉴기니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는 토피진 사전 작업을 3차 수정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오자를 고치고, 의미 추가가 필요한 단어에 의미를 더하고, 사용되고 있지만 빠진 단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스트롱 코드가 달린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전을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에서 쉽게 찾기 해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Logos와 같은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언어 자문 사역 파푸아뉴기니 SIL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앞으로 코로나처럼 예기치 못할 상황이나 급변하는 선교지의 변화에 따라 비거주 원거리 사역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파푸아뉴기니 입국 전까지 저희 부부에게 비거주 원거리 사역을 요청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언어 자문과 관련되어 읽어야 하는 도서와 논문 리스트를 받아 읽고 있습니다. 약 900개나 되는 언어가 있는 파푸아뉴기니에는 세 개의 언어학의 그룹이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계, 오스트로네시아계, 파푸아계입니다. 그 중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이 관심을 끌었는데, 동사를 중심으로 대명사 형태로 주어나 목적어가 결합하고, 다시 주어와 목적어가 다시 문장에 나타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재밌는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세요.

--기도제목--

1.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2. 열악한 의료 시설로 감당하기 힘든 파푸아뉴기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도록..
3. 김운용 선교사가 비거주 원거리 언어 자문 사역과 신임 선교사의 언어학 훈련에 관련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시도록..
4. 동역 교회와 동역하시는 분들과 저희 가족 구성원이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5. 머민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임이 믿어지고 감사로 순종하며군복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 8~10)

늘 감사드리며,

--파푸아뉴기니 김운용/남영미 선교사--

1. 인도네시아와 칼리만탄 소식--인도네시아 인구 약 2억 7천만명과 1만 7,500 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현지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고립되어 있는 듯한 상실감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전염병 상황입니다. 8월 셋째 주부터는 매일 4,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고, 누적확진자: 257,388명, 회복: 187,958명, 사망자: 9,977명이고, 저희가 거주하고 사역하는 남부 칼리만탄 주에도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여 9,984명 (9월 23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고, 움츠러들게 하고, 헤롯과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손을 내미시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는 그 것--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라는 사역의 숫자를 보고 생각하면 사역의 엄두가 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과 은혜에 다시금 힘과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2. 가정방문과 전도--처음에는 전염병이라는 상황과 숫자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섰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죽음, 중압감과 두려움에 내일을 염려하며 깊은 바다에 빠지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앞드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다시 주시는 은혜로 이웃들에게 나누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 전도 대상자 노트를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가정에 방문하여 오병이어-생필품과 사랑을 나누는 전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게 문전 박대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만나기 쉽지 않았던 이들의 초대와 영접을 받고,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았다는 가정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잃은 양을 찾고 주님의 기쁨에 초대를 받아-천국 잔치, 작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3. 현지 사역자 전도 훈련 & 가정 지원--병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현지 동역자 부부와 함께 사역을 위한 말씀 나눔과 훈련을 매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훈련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 암송과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도 훈련을 하고, 한 주간 실천 후 사역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시하신 현지 동역자들과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전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섬기며 사역하며 재생산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 약 2억 7천만명 주민들과 1만 7,500개 섬과 수백여 종족과 문화, 종교, 언어의 다양함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 가정방문 전도와 구제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호•인도하시고, 만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3. 사랑의 공동체 기숙사 아이들 (기나, 띠아라, 라우라, 벨라, 리브가, 렐루, 살디나, 옥타비아, 뿌뜨리)을 위해서-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향에 있지만, 영육간에 강건함과학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4.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설계도면 (1,2층: 각층 20m X 20m)과 건축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통해서 보육원 사역과 장학관, 선교훈련, 구제와 전도사역등 복음의 통로가 되고, 브살렐과 오홀리암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축사와 시공업체를 만나서 선교센터가 순적하게 건축되고 헌당 될 수 있도록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남부, 반자르바루에서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



점점 심각해지는 인도는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 국가로 매일 70,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의 영혼과 기도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코로나를 이기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인도는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 국가로 매일 70,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푸네만해도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한 번은 저희 아파트에 앰블런스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집 바로 밑에 집에서 위급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인도는 코로나가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긴장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인도 경제가 -23% 성장률을 보였는데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직장도 많이 잃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때문에 더이상 봉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배고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감동 Safe Pack(안심팩) 코로나 바이러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식료품도 필요했지만 그들에게 안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비타민, 과자, 전도지로 구성하였는데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빈민지역에 방문하여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마을 이웃과 현지 교회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은 이들은 너무나 기뻐하였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동굴과 같은 집에서만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안심팩을 받게 되니 오랜만에 동굴 속에 비친 빛을 보듯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건강과 안전까지 챙겨주는 마음에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현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 가운데서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계유지도 힘들어 구입할 수 없었던 마스크와 소독용품 등이 들어있는 이 팩은 큰 도움이 되었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과자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받은 이들이 안심팩의 안심을 넘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노숙자에게 도시락과 마스크를 현지인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주마다 노숙자들에게 도시락과 마스크를 나눠 주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길에서 사는 엄마들, 이들은 아무 힘없이, 생명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이 있는 존귀한 사람인데 동물보다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도시락(한끼 480원) 만들어 차로 다니며 길거리에서, 역전에서, 지역교회 근처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스크도(1장 70원)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이들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실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과 빵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뽕뜨라지’는 길을 다니며 자신의 몸에 채찍을 때림으로 의뢰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도의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들도 그동안 코로나로 나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나와 저희는 한 뽕뜨라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받고 그 뽕뜨라지가 사는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한 군락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식료품과 물품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한 현지 사역자는 사람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이들은 매우 강박하고 사나워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시어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돌보시기 위해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그들을 계속 찾아가서 돌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1차로 식료품 사역을 마치고, 안심팩을 나눠 주었지만 봉쇄 완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꾸러미를 만들어 여러 마을을 다니며 나누어주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아파트나 건물 공사장 옆에 살면서 일을 도와주는 슬럼인데 코로나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다 고향으로 떠나고 몇 가정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힘든 것은 식품의 부재도 있었지만 신분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편견과 천대, 또 마을 앞에 확진자 발생지역임을 표시하는 대나무 바리케이트에서 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들의 눈빛은 빵이 아니라 사랑에 굶주린 눈빛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돌면서 식료품을 하나씩 나누어주는데 어떤 가정은 많고 어떤 가정은 부족하나 이것을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되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한 개라도 더 받고 싶지 않는 집에 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들의 양심 이전의 그들의 간절함에 한 개 더 채워주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말씀과 필요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역물품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 인도의 현지교회는 코로나로 6개월째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도 정부가 50명 이하 집회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역물품(적외선 온도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소독제, 분무기, 전도지)을 현지교회에 준비시켜주었습니다. 그 동안 핸드폰이 없어서, 컴퓨터가 없어서, 인터넷이 안되서, 비대면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방역물품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집회가 허가는 뻤지만 성도들이 감염문제로 교회 모임에 나오는 것을 조심했는데 이제 이 방역물품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마음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7개 교회에 귀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역물품을 통하여 교회에 나와 주님을 대면하고, 목사님을 대면하고 성도들을 대면하는 은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1) 도시락/마스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 2) 현지 교회에(17개) 방역 물품이 준비되었는데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 3) 코로나 이후에 방과후 교실이 열리게 되어 아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필요한 동역자, 교사, 장소, 물품 등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 4) 대학 한국어 강의가 재개되어 전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 5) 지금 화상으로 받고 있는 전도폭발훈련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 6) 저희 가족의 영육의 강건과 안전을 위해서
- 7) 저와 아내의 비자가 연장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준기, 손옥수 (성민, 성윤) 선교사--



뽕뜨라지

